



특허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3.(수) 09:00	배포 일시	2022. 3. 23.(수) 08:30
담당 부서 <총괄>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8321)
		담당자	서기관 명대근 (042-481-5736)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

-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그간의 논의내용을 백서로 발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하였다.

*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에 발간

- 백서에는 ①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현황, ②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과, ③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회의(컨퍼런스) 논의내용 등이 담겨있다.

- ①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하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ence

-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 ①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특허법상 발명자를 나타내는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

② 이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에 발족하였다.

-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 다만,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작년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③ 또한,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인공지능(AI)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한국(주최), 미국, 중국, 유럽(EPO), 영국, 호주, 캐나다 특허청

-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앞으로도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IP5*)를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 IP5: 한국, 미국, 유럽(EPO), 중국, 일본 특허청 회의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WIPO: “AI and IP”라는 패널을 1년에 약 2회 운영중(올해 9월 AI 발명자 관련 논의 예정)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 특허출원의 사건 진행 경과

- (출원) '19년 미국의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가 자신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하여 국제 특허출원* → '21년 국내 진입 완료(5. 17.)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출원번호】 10-2020-7007394호(국제출원일: '19. 9. 17.)

【출원인】 테일러 스티븐 엘. ← AI 개발자(자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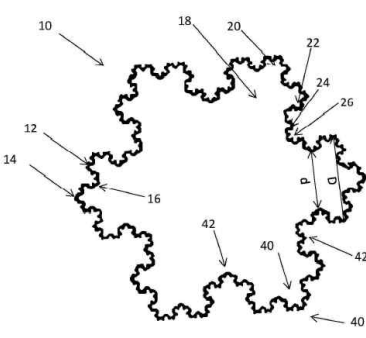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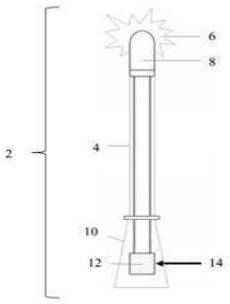
【발명자】 다부스 (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 ← AI

【영문】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발명의 명칭】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 (우선권 주장) ①EP18275163(식품 용기) ②EP18275174(개선된 주의를 끄는 장치)

- (출원인 주장) ①다부스(AI)가 일반적 발명 지식을 학습한 후 독자적 창작 ②자신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성격의 2개의 발명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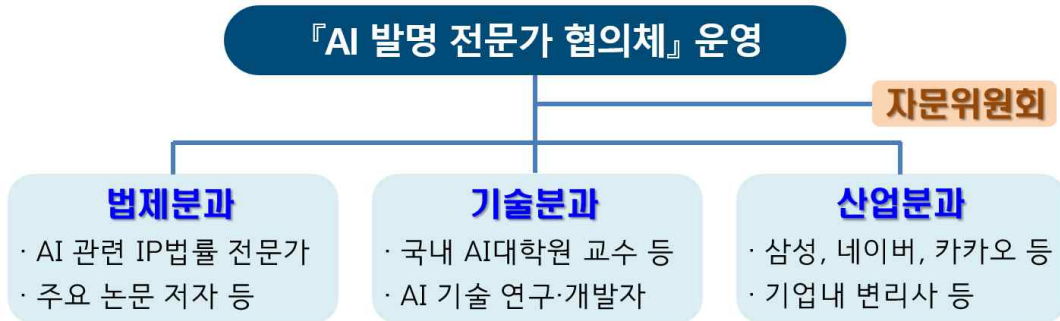
구분	제1 발명	제2 발명
명칭	식품 용기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신경 자극 램프
대표도		
발명 내용	용기의 내외부에 오목부와 볼록부를 갖는 프랙탈 구조의 식품 용기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는 깜빡임 빛을 내는 램프
효과	용기의 결합이 쉽고, 높은 열전달 효율과 손으로 잡기 쉬움	램프의 동작 패턴으로 관심 집중개선

- (심사현황) 보정요구서* 발송 → 의견서·보정서 접수 대기 중

* (사유) AI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발명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발명자 기재의 보정 필요

※ AI가 직접 발명했는지의 판단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발생

□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 운영 체계



□ AI 발명 관련 핵심 쟁점

순번	쟁점사항	분야
①	(現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 대다수 전문가는 AI 기술 수준*을 ②단계로 판단(DABUS는 ③단계 주장) * ①단순 도구, ②인간의 방향성 제시 + AI 결과 도출, ③인간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발명	기술
②	(발명자 인정) AI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 현행법상 자연인만 가능하여 불인정되나, 향후 인정 여부 검토 필요 * AI에 제한적 권리능력(발명자) 부여, AI→인간에게 권리승계 방안 등	법제 기술
③	(권리귀속) AI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AI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체인 유체물로, 권리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AI의 발명 소유권은 불인정(국내외 통설) ⇒ AI 발명의 특허권은 누가 갖는지(개발자/소유자/사용자)가 논의의 핵심	법제 산업
④	(보호 필요성) AI 발명의 보호가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 국내 AI 기술 수준 및 국익을 고려할 때 선제적 보호가 필요한지 ※ (긍정) AI 기술 발전 및 산업적 활용에 도움 vs. (부정) 국내만 보호 시 국내기업 역차별, 미국의 80% 수준의 기술력 고려 필요, AI 자체 기술은 지금도 보호	산업 기술
⑤	(보호 방법론) 특허법 개정 vs. 특별법 제정(분리 차별설) - (특허법) ▲차별적 취급은 AI 사용을 숨길 우려 ▲특허는 현재까지 기술 보호 방법 중 가장 효과적 ▲BM, SW 등과 같이 AI도 現 제도로 포섭 可 - (특별법) ▲인간과 동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 ▲다른 형태의 적절한 보상 및 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 등(짧은 존속기간, 높은 진보성 등)	법제 산업
⑥	(기타 이슈) 특허성 판단 방법, 침해 시 책임소재, 명세서 기재 요건 등	법제

◆ 행사 개요

- ▶ (일시·방식) '21.12.8(20:00~22:30), 화상회의·동시통역으로 진행
- ▶ (장소)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국제회의실
- ▶ (참석국) 미국, EPO(유럽), 중국, 영국, 호주, 캐나다 (우리청 포함 총 7개국)
- ▶ (의제) AI 발명자 관련 각 국 현황 진단, 법 개정 관련 세부 논의 등

□ 행사 진행 사진

